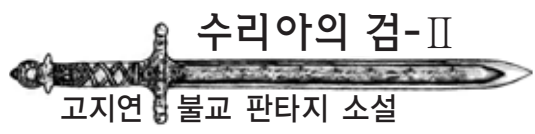


#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겐 내일이 있잖아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5)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엔 내일이 있잖아, 응?”

자기 옆에 드러눕는 친구를 위로하며 난다가 말했다. 그때 머리 위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무니가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다. 소리의 주인공은 칸타카였다. 친구를 따라 일어난 난다가 말했다.

“아. 저거. 어릴 때부터 저런 소리를 자주 내더라고. 약간 풀피리 소리 같지?”

무니가 “응”하고 대답하며 다시 칸타카를 쳐다봤다.

“아무튼 귀엽게 생겼는데, 통 키가 자라지 않아서 걱정이야. 할아버진 한 번에 수욕 클 거라는 데. 그럼 너도 그런 건가?”

난다는 자기보다 한참 작은 무니의 키를 집듯 재보는 척 했다. 무니는 난다를 향해 눈을 한 번 부러려 준 다음, 칸타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망아지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근데 갑자기 배신감 느껴지네. 어쩌면 저 녀석은 나랑은 일 년이나 같이 지냈고, 너네 집에선 고작 하루 밖에 지내지 않았는데 아까부터 너한테만 딱 붙어있나.”

난다의 말에 무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칸타카 말이야. 좀 심심해하는 거 같은데?”

“응? 칸타카가 그렇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우리 누프르산까지 가볼까. 거기에 산딸기 많이 나지? 그거 따서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자.”

“흠. 그럼 그렇까. 어차피 저녁 전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난다가 영덩이를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는 정오를 가리키려던 아직 멀었고, 하늘도 여전히 맑았다. 아이들은 또 경주라도 하듯 순식간에 산을 내려가 누프르산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멀리 보리밭에서 잠시 일손을 놓은 촌장이 그런 두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밤중이 되어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안 그래도 심약해진 마야는 또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저녁때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애써 짐작하려 했던 난다네 부모도 불안감으로 손을 떨며 아이들을 찾아 헤맸다. 유리 영감은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사람들에게 세세히 알려준 다음 마야를 돌봤다. 약용이라도 꾸는 것인지 마야는 때때로 심하게 온몸을 떨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를 가슴에 붙여주려는 순간 마야가 뛰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 영감은 급히 그녀의 얼굴에 귀를 가져갔지만 어떠한 말도

다시 흘러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예상했던 대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든 등불은 마치 어둠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이 녀석들아.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게냐…….”

그의 안색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한편 촌장의 지휘를 받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아이들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다시 마을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어디에도 아이들은 없었고, 단서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그 아이들을 본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단 말이요?”

촌장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게 말이네. 누가 그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봤어도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텐데. 이래서 오늘 밤 안에 어디 찾을 수 있겠는가.”

아베레가 후하고 울음을 삼키며 남편, 소남에게 기댔다. 그때 목소리를 기다들은 촌장이 말했다.

“아무래도 비 내리는 모양이 심상치가 않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더욱 빨리 아이들을 찾아야하지 않겠나.”

마을 사람들은 또 끔뵤 수긍하여 웅성거렸다.

“작년 이맘 때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지.”

“그래서 무니가 폐렴에 걸려 죽지 않았나.”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가 또 말했다.

“하지만 찾아볼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 않나. 어떤 곳은 시간을 두고 두 번을 나눠서 가본 곳도 있네. 또 어디를 찾아본다는 말인가?”

그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아베레가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다.

“어쩌면 누프르산에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곳 산딸기가 맛있다는 이야기 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촌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럼 일단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한 쪽은 다시 마을을 다른 한 쪽은 누프르산 쪽으로 가 보도록 합시다.”

그 말투에는 아쉬움과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묻어났지만, 그걸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등불에 덮개를 씌웠지만, 그래도 몇 개는 꺼지고 말았다. 눈앞을 가리는 빗물과 어둠 때문에 누프르산에 갔던 사람들은 험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길이 질척거리고 미끄러워 훅사라도 아이들이 쓰러져 있을 법한 곳까지 가기는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 중 보다 젊고 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기로 했다.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나서서 아베레를 모두 나서서 만류했다. 그런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소남도 남아야 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소년의 모습을 나타내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유리 영감의 오두막 앞이었다. 그 옆에는 칸타카 역시 지친 모습으



선화 · 김홍인

로 쓰러져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니와 난다가 눈을 뜬 곳도 유리 영감의 오두막 안이었다. 먼저 일어난 난다가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며 할아버지와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눈을 다 비비고 손을 떼자 분명 걱정스럽게 자신을 쳐다보던 그 얼굴들은 어느새 화난 표정으로 난다를 쳐다보고 있었다.

“난다, 이 녀석!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아빠가 먼저 소리를 질렀고, 다음에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마을 밖으로 나갈 때는 뭐라고 했니? 꼭 말하라고 했지! 그리고 무조건 저녁 시간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난다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난다네 부모의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깬 무니도 놀라서 어른들을 쳐다봤다. 그때 별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유리 영감이 입을 열었다.

“앞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건 당분간 금지다. 그리고 무니 너는 일단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오렴. 네 걱정에 또 쓰러졌단다. 있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이 할아버지 오두막으로 오거라.”

무니는 그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헉기증에 비틀거렸다. 유리 영감이 무니를 잡아주며 다

시 앉히고는 파란색 액체 같은 걸 먹였다.

“너희가 먹은 건 아주 강력한 수면 작용을 일으키는 풀케라는 식물이라네. 아주 조금만 먹어도 금방 잠이 들지. 특히 너희같이 열 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주 위험해. 우선 해독제 기운이 퍼질 때까지 거기 좀 더 앉아있으려무나. 아무래도 너희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중독이 된 거 같구나.”

유리 영감은 난다에게도 남은 해독제를 먹게 했다. 그걸 먹으며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던 난다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듯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뜨끔해 시선을 외면했다. 무니는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약기운이 빨리 퍼지기만을 기다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마야는 멍한 눈을 깜박 깜박하고 있었다. 어젯밤 쓰러진 이후로 긴 꿈을 꿔던 거 같았는데, 내용은 생각나지 않고 어떤 영상들만이 한 장씩 한 장씩 책을 넘기듯 기억나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 소리에 마야는 눈앞의 영상을 접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니가 그런 엄마에게와 안기며 말했다.

“엄마. 미안.”

마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 포옹을 푼 그녀는 무니의 눈을 바라봤다.

그러자 무니가 어쩌다 길을 잃고 잠이 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딸기 따러 누프르산에 갔었는데, 되게 맑을 줄 알았던 산딸기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자주 자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산딸기가 잔뜩 모여 있는 곳이 나오더라구. 거기서 난 다랑 잔뜩 딸기를 따서 먹었는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풀 같은 게 섞여 있었나 봐. 유리 영감 말이 금방 잠이 오는 풀이래.”

“풀케를 잘 못 먹었구나.”

마야는 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또 다시 머릿속이 멍해졌다. 계속해서 똑같은 영상이 눈앞에 반복되는 거 같았다. ‘도대체 이 장면들은 뭐지?’ 그녀는 그 장면들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결국 알아냈다. 그건 꿈도 망상도 아니었다. 누프르산에서부터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이 잃어버렸던 시간의 일부였다. 아직 그 시간의 시작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때의 기억이 맞았다. 마야는 자신도 모르게 무니의 몸을 꼭 껴안았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유리 영감이 말한 대로 무니는 저녁 시간이 되어 다시 그의 오두막을 찾았다. 집 안이 캄캄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무니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밀었다.

<p><b>830호   불자 정보</b></p> <p>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양산시 불금읍</li> <li>• 면적 40평</li> <li>• 아미타, 관음, 지장, 신중, 후불탱화</li> <li>• 큰방3개, 큰 창고 1</li> <li>•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li> <li>• 시설비 800만원</li> </ul> <p><b>055)383-7708</b></p>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 동구 미곡동</li> <li>• 팔공산 백안 삼거리 부근 60평</li> <li>• 앞에는 잔디밭, 뒤는 연못있음, 텃밭</li> <li>• 법당 요사채·방3,식당,거실, 공양실</li> <li>• 인테리어 원목구조 시설 A급</li> <li>• 즉시 법회 가능</li> <li>•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li> <li>• 시설비 상담 후 결정</li> </ul> <p><b>010-4040-8858</b></p>	<p><b>토굴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li> <li>• 면적: 총 93평</li> <li>• 건평 20평, 창고 5평(별도)</li> <li>• 가액: 5,400만원</li> </ul> <p><b>011-583-4204</b> <b>055)944-4256</b></p>	<p><b>바닷가 기도처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망좋은 바다와 도로 접</li> <li>• 위치: 포항 북구 슬라브 집</li> <li>• 대지 65평, 건평 23평</li> <li>• 가액: 7500만원</li> </ul> <p><b>010-6474-5903</b> <b>011-825-3181</b></p>
<p><b>문경세제 아담한 암자(사찰) 최고의 명당 자리 절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li> <li>• 종교용지 730평방미터</li> <li>• 1평방미터 가격 150,000원</li> <li>• 평갈 암자 명회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li> <li>• 건물내역: 산신각 1동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건물 (중어) 건물값은 받지 않고 드립니다</li> <li>• 불탑교환 가능</li> </ul> <p><b>011-9535-1150</b></p>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li> <li>• 2층 48평 • 법당 26평, 요사 방3</li> <li>• 내부: 욕실 겸 화장실, 베란다</li> <li>• 에어컨2대, 싱크대, 순간온수기</li> <li>• 보증금 1천만원, 월 63만원</li> <li>• 시설비 500만원</li> </ul> <p><b>010-4723-7749</b></p>	<p><b>암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영천 금호</li> <li>• 대지 108평, 건물 60평</li> <li>• 법당 15평, 거실(大)1, 공양간(大)1 방3, 보일러실, 창고</li> <li>• 식수: 지하수</li> <li>• 주변여건: 뒤에는 작은 산, 앞에는 큰 저수지 위치</li> <li>• 가액: 집기포함 9천만원</li> </ul> <p><b>010-4504-1246</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li> <li>• 대지 120여평, 법당 30평</li> <li>• 요사 20평, 창고 7평</li> <li>• 차량 마당 진입 가능</li> <li>• 집기일체 양도</li> <li>• 가액: 1억 1천만원</li> </ul> <p><b>010-4730-4350</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천 남구 구월동</li> <li>• 모래내 시장옆(아파트밀집)</li> <li>• 실평수 108평</li> <li>• 법당1, 방4, 창고방1, 공양간, 창고</li> <li>• 입실부엌, 재래식부엌, 도시가스</li> <li>• 보증금 2000만원 월 120만원</li> <li>• 시설비 답사 후 결정</li> </ul> <p><b>032)467-0317</b></p>
<p><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전 유성구</li> <li>• 4층건물의 2층 • 전체 40평</li> <li>• 방1, 법당, 주방</li> <li>•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li> <li>• 시설비 절충가능</li> </ul> <p><b>010-4506-7054</b></p>	<p><b>포교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시 중구 시내 중심지</li> <li>• 4층건물 4층, 70평</li> <li>•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li> <li>• 법당 - 운각으로 조각 되었음</li> <li>• 시설 A급-3천만원 들었음</li> <li>• 1600만원만 받겠습니다</li> <li>• 넓은 옥상-채소 많이 심을 수 있음</li> </ul> <p><b>010-3131-1094</b></p>	<p><b>암자 전세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용인 중심가</li> <li>• 25평 단독</li> <li>• 거실, 법당, 큰방, 작은방, 공양실, 욕실</li> <li>• 전세 4천만원</li> </ul> <p><b>011-9568-0168</b> <b>010-2506-2425</b></p>	<p><b>요양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인지역</li> <li>• 5층건물</li> <li>• 평수 450평</li> <li>• 현재 운영중</li> <li>• 가액: 전화 상담</li> </ul> <p><b>010-6485-0617</b></p>	<p><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근교</li> <li>• 법당 25평, 요사채, 방3개, 외부화장실</li> <li>• 공양간, 상태 좋은 돌</li> <li>• 대지 277평 외 사용가능 터 320평</li> <li>• 가액:1억 8천만원, 절 30년 됨</li> </ul> <p><b>010-9290-5966</b></p>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5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